
		보 도 자 료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2년 3월 25일(금) 총 2매	 환경특별시 인천
담당 부서	보훈과	담 당 자	• 보훈지원팀장 양경석 ☎440-2971 • 담당자 안준열 ☎440-2972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서해수호의 날 맞아 호국영령 추모

- 코로나 확산 우려...기념식 기념비 참배로 대체, 유가족에 서한문 전달해 위로 -

- 평화를 위한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 잊지 않습니다. -

인천광역시는 25일 ‘제7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월미공원 내 해군 제 2함대 사령부 주둔 기념비에 참배했다고 밝혔다.

당초 300여명의 관련 인사를 초청해 진행기로 했던 기념식이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기념비 참배로 대체된 것으로, 조택상 균형발전

정무부시장·강원모 시의회 제1부의장·도성훈 교육감·김병재 인천 해역방어사령관·인천보훈지청 관계자 등이 전사자 추모를 위한 기념비 참배에 함께했다.

또한 인천시는 이달 중으로 관내 거주 유가족에게 시장 서한문을 전달해 유가족의 슬픔을 위로할 예정이다.

조택상 시 균형발전 정무부시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행사를 개최하지 못한 점에 대해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번 서해수호 기념식을 통해

호국정신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그들의 희생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 된 마음으로 안보의식을 다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염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해수호의 날(매년 3월 넷째 금요일)’은 연평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등 서해수호를 위해 목숨 바친 호국영령을 추모하고자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 관련 사진은 09시 이후 인천시 홈페이지 ‘보도자료’에 게시될 예정입니다